



카파라치가 양봉장에 기승



사무총장 최 규 칠

최근 한국양봉조합에서는 조합원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카파라치들을 동원하여 양봉장 현장을 방문하고 있어 많은 양봉농가들이 로얄제리 생산 등 정상적인 봉군관리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카파라치들은 양봉장에 예고 없이 방문하여 양봉장사진을 찍는가 하면 과거 형사라고 말하면서 위압적으로 행동하는 등 선량한 양봉농가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의 한 양봉농가는 여름봉장에서 로얄제리를 채취하는 동안 예고 없이 무단으로 양봉장을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마치 범인 취급하는 카파라치들의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양꿀생산업자로 취급하는 행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또한 카파라치들은 조합원 농가 지도사업 명분으로 다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조합원 양봉농가를 집중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봉업계가 연이은 흉작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농가가 더욱 위축되고 그 영향이 판매업계에까지 미치는 등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대형마트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등 판매업소의 벌꿀은 가짜고 농협꿀은 진짜라고 대형마트 대표 및 담당자에게 설득/홍보 하고 다니는 것은 소비자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대형마트 대표자(담당자)들도 벌꿀의 가격에서 차등을 두고 판매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그랜저를 타는 사람도 있고, 티코를 타는 사람도 있듯이 저 소득 소비자들에게 값

이 싹 꿀을 먹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벌꿀의 팔로를 개척하는 것도 양봉산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양봉업계에 뿌리 깊이 내려오고 있는 내 꿀은 좋고 남의 꿀은 나쁘다는 식의 논리는 양봉산업을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생산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벌꿀 판매업소에서 활발한 판매가 이루어질 때 생산농가도 살고 양봉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탄소동위원소가 벌꿀 진위 판별에 가장 완벽한 절대적인 방법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는 최근 일부 업계로 인해 더욱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본 협회의 그동안의 주장이 최근 들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양봉업계의 홍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좋은꿀 나쁜꿀 논란은 이쯤에서 접고 벌꿀의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집중 홍보하여 우리 양봉농가가 생산한 벌꿀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살 수 있도록 소비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 WTO-DDA협상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양봉인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양봉산업은 타 품목에 비해 정부의 인지도는 낮지만 현재 축산분야에서는 우위를 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금년 연이은 아카시아 벌꿀 흉작으로 인하여 양봉농가들은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때일수록 생산농가와 양봉협회·조합은 함께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양봉농가 보호 및 산업 진흥 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양봉업계에 밀어 닦친 지금의 위기 상황은 양봉인 스스로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던 상대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양봉인들이 서로 믿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벌꿀의 소비가 감소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보다 진보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소비자가 벌꿀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는 홍보 전략을 세워 나갈 때 조합에 정체된 벌꿀은 큰 어려움 없이 소진될 것이며, 양봉산업은 더 한층 발전하게 될 것이다.

